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어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나' 부터 믿어야 올바르게 가는 길 생겨요

전국에서 모인 우리 청년 법우님들. 반가워요. 여러분 모두가 나의 모습을 그렇게 택하지 말고 나의 모습 없는 나에게, 자기 모습 없는 자기에게 항상 귀의해서 일체를 다 거기 놓고 간다면 나 또한 돌이 아니게 항상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한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내가 내 모습대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 모습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나도 진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구요. 그래서 모습을 원하지 말라. 내 모습 없는 나를 발견하고 진짜로 믿는다면, 발견하기 이전에도 믿는다면 나와 더불어 급할 땐 항상 같이 하게 돼요. 그거를 명심해요.

에서 청년들이 모두 인사를 했는데 말이예요. 내 모습이 인사를 받은 게 아니라 모습 없는 부처님께서 모두 인사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참 진짜 이런 말하기는 뭣하지만 모습 없는 모습이 세 분이 역력하게 여러분의 인사를 받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공부해 하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제대로 할 수 있고 제대로 감응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도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진실로 일생을 매듭을 짓고 나중에는 훨훨 털어 벗어던지고 나설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교를 종교라고 해서 믿고 다닌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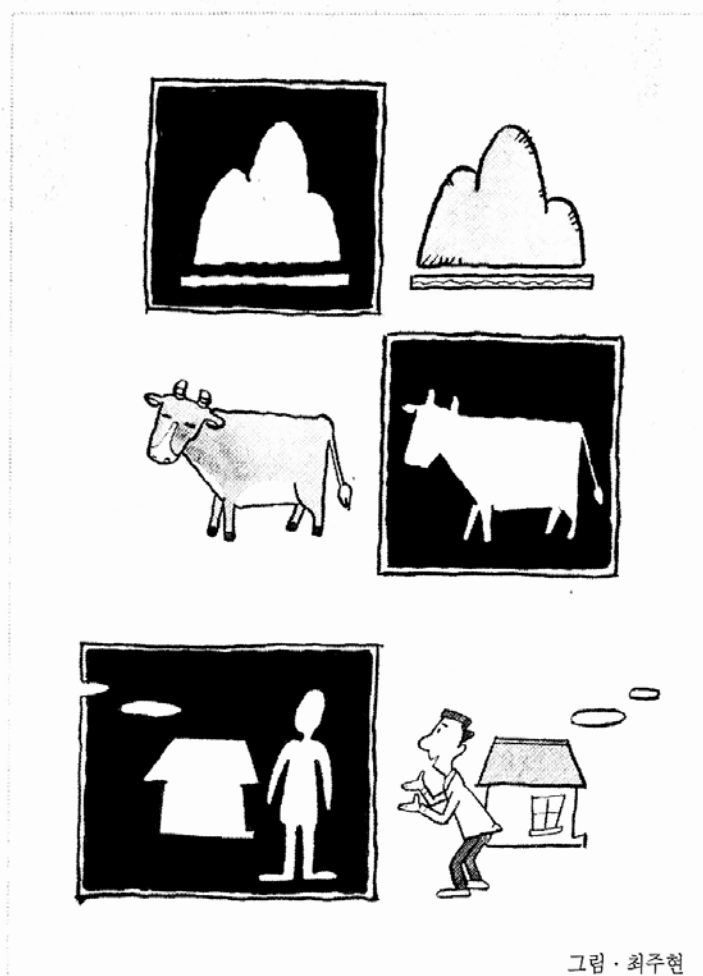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못하고 또 다시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 모습을 벗기 위해서 또 얼마나 애를 써야 할까요.

쉽게 생각한다면 부처님을 믿는 것도, 자기부터 믿어야 부처님이 믿어지죠. 부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야, 아픈데 일어나지 말라. 내 모습을 보고 일어나지 말라. 네가 너를 진짜로 믿는다면 나의 모습없는 나도 내가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느니라" 하고요. 그러듯이 여러분도 인생 사는 게 이런 거야 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가신다면 정말 인생은 거들거들 찾지 못해요.

진짜 돈을 쥐고 다니면서 나를 찾을래도 찾을 수 없고 내 자리를 찾을래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리는 이 우주 허공 중에 어떤 자리가 내 자리 아님이

는데 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웃고 살아라. 그렇게 빨리빨리 생각나는 대로 우그러진 거를 퍼라. 즉 말하자면 집안이 무슨 우환이 생겼나 이러더라도 빨리 퍼라. 빨리 퍼야지 그걸 우물쭈물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가는 퍼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젊은 여가 있더라도 저 어디에 무슨 일이 있다 이러면 거기 가서 해결해요. 그냥 내 몸이 열개로 변장을 해서 하더라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 몸뿐 아니라 지나가는 나무라도 인연이 있으면 모습이 돼서 다 서로가 맞먹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경을 보고 외로게도 바로 깨고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가 아니라 하고 말씀하신 이치가 이거를 알아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내지 않고 웃으며 말하면 힘한 길 평탄하게 만드는 일

그리고 지난주 울산지원 상량식 있을 때 여러분 모두가 한데 동참해 주신데 대해서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죠. 아, 부처님이 모두 이렇게 한자리 해주시고, 열반 자리라는 것은 서천국에 한데 합쳐서 아마타 도량이 됐구나 하고 말이예요. 여러분이 또 제각기 가피력을 받으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뜻으로나마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느껴질 겁니다. 더딘 사람은 더딘 거고 빠른 사람은 빠른 거고 그럴 것입니다.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그 가피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서로 서로 도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다같이 도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데 모여주신데 대해서, 나보다도 내 마음이 그럴 때는 일체제불께서 모두 여러분한테 가피를 주셨으리라고 진짜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꼭 이 세상을 발판을 세워서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전 지원을 들었습니다. 허허허. 한 지원 한 지원

종교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가 때문이죠. 우리 자신들의 껍데기인 이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살고 있고 이글어가는 내가 있으니까 꼭 그것은 서로가 상봉하고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믿어야 되겠다. 믿지 않는다면 나를 누가 믿으며 내가 딛 사람 누구를 믿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나를 내가 믿어서 발견할 수 있는 거. 진짜로 믿지 못한다면 모든 게 허사죠. 이 세상에 나 하나를 잘 믿을 수 있어야만 전부 믿을 수 있죠. 그래야 자연스럽게 가는 길도 올바르게 가게끔 자동적으로 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얼마나 신비하고 자동적인지 정말이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공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절에 가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살아 보시지만, 인생은 살아보면 살아보는 대로 맘대로 말할 수도 없고 맘대로 들을 수도 없고, 맘대로 할 수도 없고 맨날 감혀 있는 거나 같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가는 데마다 누구를 만나는 데마다 섭섭지 않게 하고

쉽습게 않게 행동하고 항상 웃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성내고 말 할 것을 성안내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성나는 일이라도 성안내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지혜로 와서 성내고 말할 것을 성안내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함안해서 가기 어려운 길을 아주 평탄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가 파고 찌르고 모습으로 이렇게 길을 내는 것은 길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이 마음으로 길을 만든다는 것은 마음대로 길을 만들 수 있다 이 소립니

다. 그리고 그것이 어렵지만 그것은 내가 진짜 살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 사람 공장에서 하는 일이지. 이 지구가 사람 만드는 공장이라면 말입니다. 사람 만들어질 때까지 얼마나 검을 지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사람 왜 가지고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모습을 바꿔가면서 나왔는데 또 다시 우리가 이 공부를 우습게 생각하고 지금 살아서 느껴보지 못하고, 이해롭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벗지 못하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상대를 우습게 생각하는 건 자기를 우습게 보기 때문

없는 거예요. 알고 본다면. 그런데 그걸 몰라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수레바퀴에 얽혀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 그 도리를 안다면 지구의 에너지가 다 없어져도 허공의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을 거예요. 수억 년동안 에너지가 된 것을 우리는 그냥 쓰고만 사니 없앨 수 밖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공부는 벽을 벽이라고 생각 안하거든요.

이런 문도 문이라고 생각 안하거든요. 그래서 문없는 문을 알아야 된다. 이 보폭도 문이고 이 천장도 문이고 이게 다 문이 아니 될 수가 없죠. 어디든지 내가 자유스럽게 발판을 디딜 수 있다. 허공을 딛고 날 수도 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자유스러운 게 모든 걸 발로 어떻게 다 하리라. 말로는 다 못해요. 여러분이 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해 보지도 못했으니 거짓으로 생각할 거거든. 그러나 그것을 말로 다 못해. 그러나 여러분이 할량으로 애들을 쓰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야.

정말 기는데 마다 곳곳마다 남을 만나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물질세계가 50%라면 무의 세계가 50%입니다. 무의 세계의 무심. 그런데 언제나 내가 있는 데에 있는 거지 내가 없는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 각자 내가 있기 때문에 불성이 있는 거고 자불이 있는 거고. 그 자불이 자기가 알아져서 상봉을 하게 되면 연등불이 되고 그렇게 화합합니다.

예전에 깨우친 분들이 말씀대로 적었다는 박부인전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때 어려서 들은 얘기로는 저쪽에서 군사가 막 쳐들어오는데 이쪽에는 군사가 별로 없었대요. 군사가 적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어디서 단없이 군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경을 지으면 나무를 심어서 담을 치고 이랬는데 노간주나무가 다 군사가 돼서 나가니 상대쪽에서 볼 때 군사가 너무 많으니까 후퇴를 해서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답니다.

박부인도 남편이 감혀있는데 감혀있는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년·사할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할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할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권행"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 들만을 위한 전용신발 - 권행 만행

기존신발

모래사장

건강코르크 신발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 드-반사이론(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과 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적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기능: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중핵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정맥·오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오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성구석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이산화탄소)이 무릎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 비구스님 용
· 회색, 흑색

· 비구니스님 용
· 회색, 흑색

1. 구두안쪽의 특수 안창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닥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하였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예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4. 신장기능개선

구입문의 0342)742-0296. 742-0297
권행대표 박동진 합장

마하몰 당첨자님들께 공지합니다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는 "현상공덕향 경품대잔치" 행사 당첨자를 12월 3일 추첨발표하고, 해당경품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으신 해당 당첨자분들께 보내드릴 경품배송에 다소의 차질을 빚고 있사오니 빠른 연락을 바랍니다.

* 택배발송시 정확한 도착을 위해서는 수령자의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민다래	서울 은평구 신사동	민다래
박문수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1동	박문수
정우성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정우성
강수진	서울 서초구 잠원동	강수진
윤기운	경기 화성군 남양면	윤기운
조은영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조은영
조현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조현관
전현자	부산 동래구 온천2동	전현자
최지현	서울 관악구 봉천10동	최지현
김광식	경북 문경시 오진동	김광식
이상규	경남 마산시 어곡동	이상규
배홍욱	경북 포항시 남구 해포2동	배홍욱
박철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박철민
김용기	경기 광명시 철산동	김용기
이경숙	경기 포천시 차수면	이경숙
권희자	부산 남구 대연동	권희자
김현숙	경기 양평군 개천면	김현숙
이상숙	부산 북구 만덕2동	이상숙
5등 (명상방식 4명)		
최중기	서울 구로구 고척동	최중기
민다래	서울 은평구 신사동	민다래
박문수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1동	박문수
정우성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정우성
강수진	서울 서초구 잠원동	강수진
윤기운	경기 화성군 남양면	윤기운
조은영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조은영
조현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조현관
전현자	부산 동래구 온천2동	전현자
최지현	서울 관악구 봉천10동	최지현
김광식	경북 문경시 오진동	김광식
이상규	경남 마산시 어곡동	이상규
배홍욱	경북 포항시 남구 해포2동	배홍욱
박철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박철민
김용기	경기 광명시 철산동	김용기
이경숙	경기 포천시 차수면	이경숙
권희자	부산 남구 대연동	권희자
김현숙	경기 양평군 개천면	김현숙
이상숙	부산 북구 만덕2동	이상숙
5등 (명상방식 4명)		
최중기	서울 구로구 고척동	최중기
박금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정동	박금희
한희영	경기 성남시 수정구 대조동	한희영
남숙녀	서울 은평구 대조동	남숙녀
김영남	부산 남구 문현1동	김영남
박순남	경기 고양시 양양면	박순남
김경숙	서울 은평구 대조동	김경숙
김영숙	경기 고양시 양양면	김영숙
이희준	부산 중구 동광동	이희준
김희준	경북 영천시 양안면	김희준
이유진	서울 은평구 대조동	이유진
신영애	경기 칠곡군 대조동	신영애
김명숙	부산 금정구 개천동	김명숙
박향순	서울 양평군 자양1동	박향순
이상훈	서울 양평군 자양1동	이상훈
하동훈	서울 양평군 자양1동	하동훈
오태수	대구 달서구 건천동	오태수
최태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최태수
이부연	경기 구미시 인창동	이부연
정기문	경기 구미시 인창동	정기문

상품 수령안내 * 경품 대잔치 담당자: 02)732-1522(직) 유지경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